

페미니즘 시각의 디자인 연구 방법론 고찰

A Study on Design Studies based on Feministic Perspective

조현신

동서대학교

Jo, Hyun Shin

Dongseo University

Key Words : Design Studies, Feministic Perspective Method, Tacit Knowledge

1. 서론

I. 디자인 담론으로서의 페미니즘

디자인 담론은 디자인의 조형성이나 디자인 방법 등 디자인의 내적 가치에 대한 연구보다는, 일정한 시각을 견지하면서 디자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의 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디자인 담론의 하나로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의 디자인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사실들이 어떤 집단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진리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권력"¹⁾이라는 시각에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행해진 디자인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디자인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근대적 시각체계와 페미니즘

근대적 시각체계는 데카르트주의적 원근법²⁾에 바탕을 둔 관찰자적 시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좀 더 확실하고 권위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근대성이 추구한 합리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 서구 근대화를 추진해 온 시각성의 요체이다. 이러한 시각체계는 탈 육체화 된 시각성, 합리적인 논거에 근거하여 이상적으로 재구성된 시각체계이며, 종립의 세계, 물가치의 세계, 정량적,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의 세계를 말한다. 자연히 세상은 관찰자의 차가운 눈을 통해 외부에서 관찰되는 자연대상들로 메워진 수학적인 시공간적 질서 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³⁾ 이러한 근대적 시각체계가 도시 디자인에 적용될 때 공간은 단지 추상화된 백지가 되고, 경험과 다원성을 강조한 공간의 생선이 아닌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이상적 개념을 3차원 공간에 축조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공간에서 도시의 질서는 특권적이고 남성적인 공공영역과 무가치하고 여성적인 가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⁴⁾ 이렇게 도시의 설계가 전지전능한 시각에서 행해지면서 여성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배제되므로, 자연히 여성의 도시 공간 경험은 이질적이고 소외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근대적 시각체계에 의해 설립된 도시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은 1980년대 여성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모임에 의해 비판되면서 여성의 시각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⁵⁾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페미니

즘적인 시각으로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은 근대적 시각체계가 형성한 현대 디자인의 형태, 기능, 디자이너의 활동을 포함하여 디자인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단일한 조망체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소수의 개별적인 체험에 대한 재인식의 작업이므로 그 영역과 방법에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요한다.

2. 본론

III. 연구 영역과 방법

1. 형태 연구 : 현재 디자인 형태 연구는 대부분 디자인 결과물의 조형성이 갖는 미적 쾌감의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즉 조형의 요소와 조형의 원리의 수행 방법에 관한 논의가 디자인 형태의 연구에 속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내적 속성의 연구를 벗어나 형태가 지닌 외적가치의 역할을 연구한다. 디자인의 목적 중 하나가 인간의 물질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고양된 단계로 이끄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형태 또한 인간의 미적 쾌감을 높임과 동시에 그 결과가 보편적인 인간의 진보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자인 결과가 여성의 보편적 진보에 대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코르셋이나 높은 힐의 구두는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미적 관점의 문제라는 논지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의 형태연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형태 연구는 공식적 차이에 따른 형태의 상이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상이점은 디자인이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경계를 사회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⁶⁾ 결론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시각의 형태 연구는 디자인된 인공물의 형태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 반영, 재창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귀결됨과 동시에 지배적인 언어체계의 형상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기능 및 적합성 연구 : 이는 공업 디자인의 분야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리미 디자인에 대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은 다리미의 형태와 그 이미지에 치중하는 한편 여성은 다리미의 무게나 옷의 소매, 깃, 진동 부분 등 다림질하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 해결에 치중한 디자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디자인 결과물의 기능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특히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부문, 공공 공간에서의 여성의

1) 스투어트 홀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담론과 권력』, 스투어트 홀의 저,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2001, p.430

2) 마틴제이, 『모더니티의 조망체계』, 이영철 역음,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시각과 언어, 1999, p.74

3) 마틴제이, 위의 책, p.77

4) 맬컴 마일스, 『미술,공간,도시』, 학고재, 2000, p.80

5) Joan Rothschild, 『Design and Feminism』,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chapter one.

6) Adrian Forty, 『Object of Desire』, Thames and Hudson, 1995, p.63

7) Nigel Whiteley, 『Feminist Perspectives』, in 『Design for Society』, PEAKTION BOOKS, 1993, p. 135

영역에 대한 연구로 치중된다. 공공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을 똑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구조나 경험에 근거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건물의 이상적 설계를 위한 도식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디자인의 이상은 기능을 통해 인간의 이상과 욕망을 디자인 하는 것이었으나, 디자인의 기능 및 그 적합성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사회구조가 리즘적인 형태로 변화 하고 있는 현재 좀 더 경험과 실제에 밀착한 디자인 사고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연구 방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공업 디자인 분야 및 교육에서의 여성의 비율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와 연결된다.

3. 여성적 언어와 창의성 연구 : 여성의 일상에 대한 경험, 여성성이 지니고 있는 언어의 개발과 연관된다. 여성의 일차적인 경험을 모성성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페미니스트적인 대안은 여성의 언어는 상대적이며 네트워크적인 것으로서 일상적 리얼리티에 대한 체험, 생명과정에서의 직접적 연루, 자연과 대지의 감정이입적인 관계 등으로 제시된다.⁸⁾ 이는 세상을 타자로서 인식하여 그 객관적인 세계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근대의 초자아적인 자아상과 대조적인 것이다.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언어를 발화하기 보다는 남성의 상징체계에 자신을 조정해야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성의 창의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남성의 언어체계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여성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여성 디자이너의 작업과정의 특징 및 그 결과를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만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디자이너 연구 : 근대사회를 탈피하면서 역사연구에서는 중심의 탈피, 대담론의 붕괴, 드럼과 광파레의 역사⁹⁾에 대한 거부와 함께 역사에서 실종되었던 사람들과 타자들의 목소리가 부활되었다. 여성 디자이너 연구 역시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인물에 대한 초점과 주목을 뜻한다. 여성 디자이너의 전기와 아이디어 발상법, 그들의 성장배경과 업적에 대한 연구는 4항목의 창의성 연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디자인학과 여학생들이 좀더 여성 디자이너의 감성과 아이디어에 치중하여 교육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여성 디자인 교육자의 비율, 디자인 현장에서의 여성의 비율의 문제로 연결된다.

5. 재현 이미지 연구 : 광고, 잡지의 이미지에 의해 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 연구이다. 이는 광고 연구에서의 내용분석적인 평가와 더불어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연구되는 주제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성적 이미지의 재순환에 관한 것으로서 여성성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재현 이미지의 연구는 여성 이미지의 창조와 순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성의 신화 어머니의 역할, 캐리어 우먼으로서의 역할, 남성의

8) 조세핀 도너번,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P.331
9) 존 워커, 『디자인의 역사』, 까치, 1999, p.178

성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다.

6. 여성 소비자 연구 : 여성의 역사적·경제적 기능은 교환을 위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생산을 하는 것이다. 즉 여성은 추상적인 가치의 추구가 아닌 그것의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며, 자신의 기억이나 이야기가 얽힌 물건을 선호하는 것, 가정 내의 소품이나 의류를 직접 제작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소비자 연구는 여성의 욕구와 사회적 언어가 어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명하므로 자연히 여성의 취향이 지닌 사소함, 변두리성과¹⁰⁾ 더불어 신화성을 연구한다. 테크놀로지와 여성의 반응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가사노동과 디자인 결과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등도 이에 속한다. 다양한 조리용구의 개발이 오히려 가사노동의 복잡성을 창조하여 여성의 창의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등의¹¹⁾ 시각은 여성 소비자 연구의 한 예이다.

3. 결론

IV. 발화되지 못한 경험적 지식의 구현

인류의 역사는 꾸준히 여성의 경험을 보편화 시키고 그것을 보편적인 언어체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회는 여전히 남성적 상징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언어 즉 여성의 경험과 욕망은 아직 충분히 사회화되지 못한 것이다.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향점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힘이며 그 물질 증거이다. 페미니즘적인 디자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내에서 디자인 결과물 즉 대상이 어떻게 여성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의 연구¹²⁾를 넘어 여성의 발화되지 못한 “내면의 경험적 지식(tacit knowledge)”¹³⁾을 현상화하여 진보를 위한 대안으로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참고 문헌

1. 존 워커, 『디자인의 역사』, 까치, 1995
2. 조세핀 도너번,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3.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4. 스투어트 홀의 저,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2001
5. 이영철 엮음,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시각과 언어, 1999
6. 맬컴 마이클스, 『미술, 공간, 도시』, 학교재, 2000
7. Adrian Forty, 『Object of Desire』, Thames and Hudson, 1995
8. Joan Rothschild, 『Design and Feminism』,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9. Nigel Whiteley, 『Feminist Perspectives』, in 『Design for Society』, PEAKTION BOOKS, 1993
10. Penny Sparke, 『As long as it's pink』, Parper Collins Publisher, 1995

10) Penny Sparke, 『As long as it's pink』, Parper Collins Publisher, 1995, p.ix
11) Nigel Whiteley, 위의 책,
12) 주디 엠피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디자인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존 워커, 『디자인의 역사』, 까치, 1995, p.281
13) Nigel Whiteley, 위의 책, p.145